

가정에서 배운 '남자다움'

김 혁/35세. 대학에서 영화를 강의하고 있음

이번호부터 〈남자가 쓰는 남자 이야기〉의 필자가 김혁 씨로 바뀐다. 올해 서른 다섯살의 독신 남성인 김혁 씨는 뉴욕시립대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현재 대학에 출강중이며 영화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나는 남자만 다섯인 집의 막내로 태어났다.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낀 점은 없었지만 부모님은 맨위로 딸인 누나와 그 밑으로 아들만 다섯을 두셨다. 누나와 나는 무려 12살이나 차이가 나서 누나는 항상 어머니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우리 집과 정반대의 집은 고모부님 댁이었는데 위에서 내리 다섯이 여자고 막내가 남자다. 그 고종 사촌은 나보다 한살이 위었는데 나는 어려서 그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우리 사촌들은 그 형이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게 집애같이 컸다고 해서 그 형을 무시했던 게 분명하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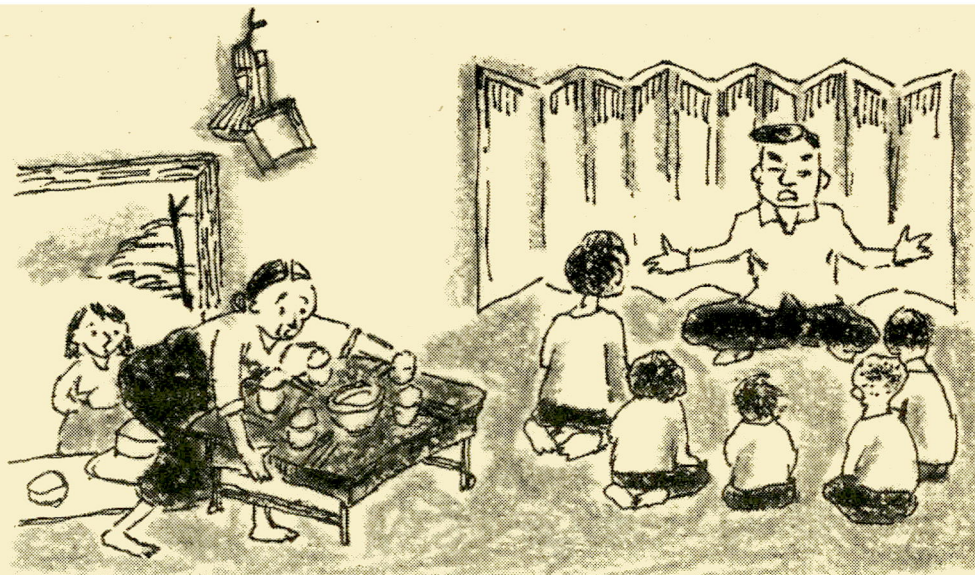
도 그 형을 형 대접한 것은 아마 중학교를 졸업해서였을 것이다. 내뻐도 이제쯤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고, 남자들 사이의 기강이 설 무렵이 아닌가 싶다.

국민학교때쯤 고모부님댁에서 한번 자고 온 적이 있는데, 아침밥을 같이 먹으면서 누나들이 귀엽다고 몇마디씩 하는 게 나는 정말 쑥스럽고 불편했다. 여자들만 있는 그런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속으론 호기심도 있고 가슴 설레는 것이긴 했으나 익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했고, 길으론 거부해야만 했다. 나는 남자들만 북적대는 우리 집이 고모부님댁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집에서 형들한테 혼나기만 하고 반항하다가 얻어맞는 게 일이었다. 사실 나는 우리 집이 싫었다.

형들은 나에게 거친 세상에 서 지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준 셈인데, 대화로써가 아

니라 주먹으로써, 힘으로써 남에게 절대 저선 안된다는 가르침이었다. 나는 집에서 형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반항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그런 가운데 형제로서의 우애도 싹터 갔다고 생각한다. 사촌들끼리 모이거나 친구들끼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참 즐겼던 전쟁놀이는 모두가 사내다움을 키우는 그런 놀이다.

하지만 어머니께선 항상 우리 형제들을 놓고 꾸지람한 적이 많다. 아들이 그렇게 많아도 사과 하나 깎을 줄 아는 애가 없다는 것이다. 밥먹고 설거지를 도와주는 커녕 밥상을 들어다 부엌까지 내다놓는 일도 손하나 까딱 안하는 아들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여자로서의 어머니는 아버지 한 분한테 받는 심리적 부담도 컸을 텐데, 다섯 명의 아버지, 다섯 명의 딸 안듣는 남자들 사이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던 셈이다. 어머니의 답



답함을 뒤늦게 안 게 불효다.

우리는 자주 어머니의 그런 푸념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술선수범해서 어머니를 도와 드리는 아들은 없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듯이 우리도 남자로써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일엔 손을 안 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큰형은 둘째에게, 둘째는 셋째에게, 셋째는 넷째에게, 넷째는 막내인 나에게 시키는 게 일이었다. 나는 그래서 반항심이 더 커졌는지도 모른다.

길으론 상당히 우애가 있는 형제들인 것 같아도 속으론 자기 자신으로만 똥똥 뭉쳐있는 이기주의자들이었으며, 남을 이겨야만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패권주의적 생각으로 자라났던 것이다. 어머니가 가르쳤던 것은 사랑으로써 서로를 돌봐줘야 한다는 희생정신이었고 남자가 무엇보다도 가정적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우리는 어머니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어머니의 애기라면 죽어도 안 듣고 무시하는 나쁜 자식들이었다. 우리가 지식에 쌓여가면 갈수록 그건 더했다. 대학을 나온 아버지가 국민학교 밖에 안나온 어머니를 대하는 그대로 우리도 어머니를 무시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돌아오시면 먼저 화부터 내셨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그대

로 집에서 발산되는 거였다. 아버지는 우리도 들으라는 듯이 큰소리로 직장에서의 화풀이를 하셨다.

아버지의 교훈은 어머니와는 전혀 달리 가정적인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남자들 세상인 거친 사회에서 어떻게 자존심 구기지 않고 살아남는가에 대한 교훈이었던 것이다. 어려서부터도 아버지를 통해 살벌한 사회에 대해 실감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이 살아오는 동안 한동안 나를 지탱해왔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항상 공허했다.